

2017. 05. 12 (일)

제139 한수진

오늘은 왜일인지 아침에 눈이 잊적적저 9시 40분쯤 일어났다. 생체한 아침 이었지만, 몸이 제법 좋게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았다. 금요일에 친구들 학교앞에 있는 시립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은 저시간정도 열심히 한 것이라이다. 나보다 좀 잦히는 친구여서, 실력이 오르는 게 몸도 느껴졌지만, 다음날 부러 팔, 다리, 발목, 허리 심지어 엉덩이까지 많이 배기는 바람에 이런 연습은 하긴 했다. 그래도 배드민턴을 하는 게 좋으니깐 강수할 수 있다.

일찍 일어난 만큼 아침에 여유를 가지고 TV도 보고 쉬다가, 씻고 11시 30분에 학교 야자실로 출발했다. 몸에 힘이 잔 안들어가서 천천히 가느라 12시쯤 도착하고, 2시에 학원에서 6월 모의고사 대비 시험을 보러 갔 때, 논술 숙제를 내야해. 급하게 논술을 썼다. 모방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 시이드가 제시한 오리엔탈리즘은 시대의 시각에서 바라본 풍양이지만, 풍양인들이 그것을 모방하여 동양학을 만들었다는 비판학으로 '무정'의 강장로는 비판하라는 문제를 쓰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한숨도 나왔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근구이니까 해야지, 하긴 다시 나를 잠으면서 숙제를 완성했다.

2시까지 창동역에 있는 학원으로 가야해서 1시 45분에 야자실에서 나왔다. 학원에서 근구 이들 여러명이 있는 교실에서 22명이 시험 시작해서 반했는데, 국어 시험 시간 80분 중에서 55분만기 강도까지 끝내 버렸다. 그래서 그냥 혼자 답지 보고 채점을 했는데, 93점!!! 심면 모의고사에서 90점대 넘은게 작년 11월 학평 국어영역에서 91점이었는데 (근데 4등급이였다...) 이번에도 최고점이 국어에서 나온 것이였다! 역시 내가 일문 과목은 국어뿐이야!는 생각으로 두자라 애아우나 잠근 핸드폰을 빌려서 등급컷은 확인해보니 딱 학평이로 1등급 오 대박이다 이번 6월모평 국어 해보는 기대해도 되겠다. 생각 하긴 했는데, 쌤님이 점수 보시고 칭찬해주셨대 그래서 "쌤! 저 1등급이에요!!!!"라고 기뻐하니까, 94점이 3등급까지인 4등급이라고 하셨다. 이게 어떻게 될지?!! 혼란과 연봉이 빠진 내기, 쌤님게서 90평가는 연계근제가 반명암이 될 거라서, 물어보지 않은 년도 더 평가원문제는 너무 못본게 아닌 이상 괜찮다고, 때면 너가 제일 잘본 거라고 심심한 위로를 해주셨지만 너무 충격이였다. 태 내가 90점대가 되면 항상 4등급연가가 괜찮이라고 해보고 싶은 정도였다.

허걱허걱 다시 야자실로 갔지만 난씨가 너무 폭군 아까워 출퇴근로 집중이 잔 안되 놓고 지근 흥해라보니 벌써 7시였다. 공부를 계속하다가 9시쯤 부모님게서 데릴러 오셨 정해시 인터넷하긴 씻는데 12시가 되어버렸다... 시간이 너무 LTE로 흘러서 허송했다. 내일부러 다시 명공하러는 다짐하며 잠에 들었다.